

“나를 비우고 상대의 말에 귀기울여야”

불교상담개발원, 4월 17일 14주년 세미나 열어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창립 14주년을 맞아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소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방하착(放下着)을 전제로 화자와 청자가 모두 그 마음을 텅 비우고 지극한 마음으로 경청할 때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가 행복의 정원이 될 것이다.”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

“경청은 대화 중에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자각하는 것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그러려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최훈동 서울대 겸임교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결여가 소통부족이라고 한다. 오늘의 첨단 기술로도 풀 수 없는 숙제가 사람간의 소통이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창립 14주년을 맞아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소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불교와 심리치료에서 본 소통-수용, 경청, 공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이 '불교에서 본 경청과 소통'을 주제로, 서동혁 원장(밝은서울정신과병원)이 '분석심리학에서 본 경청, 수용, 공감, 치유의 이해'를 주제로, 최훈동 서울대 겸임교수가 '치유명상에서 소통-수용명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에서 법상 스님은 경청과 공감의 의미, 그리고 불교적인 경청과 공감의 조건이나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법상 스님은 “먼저 경청을 해야 심리적 공감을 일으키고 공감을 일으켜야 원만한 소통이 가능하다. 소통이 되어 인간관계가 원만해져 만족스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소통과 경청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사무람상이고, 배려하는 경청의 실현은 사섭법이며, 경청의 자세는 개경계이고, 공감의 내용은 수지독송(受持諷誦)과 신수봉행(信受奉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감은

경청을 전제로 하고 경청은 소통으로 발전한다”며 “결과적으로 (공감과 경청 그리고 소통의)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몸과 마음이 안정을 유지해서 고통을 여의고 인락을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혁 원장은 분석심리학적 정신치료를 위해서는 이해를 통한 철학적 사색이나 명상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치료자는 내담자의 모든 표현에 대해 판단을 중지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경청해야 한다. 이것이 치료자의 ‘관찰적 자아’인데, 치료자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려면 치료자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관찰적 자아’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원장은 “치료자와 내담자에게는 계정제가 필요하다. 계는 치료 계약, 정은 관찰적 자아, 해는 통찰(감정적 이해)이라며 “분석심리학에서 증상과 고통은 이해받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자아의 태도가 바뀌어 자신을 돌보면 증상과 고통이 사라진다. 이해한다는 것은 자아가 증상을 만드는 차원을 초월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훈동 교수는 내면의 소음 때문에 상대의 경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속고명상’이 해법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말을 잘 듣고자 하나 경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청을 가로막는 내면의 소음 때문”이라며 “스며들고 대면하여 지켜보기 △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 △머물러 경험하기 △공감하기 △통찰과 통합 △변환의 단계를 거치는 속고명상을 통해 나의 문제 깊숙이 들어가 그 동안 자각하지 못한 나 자신과 하나 되는 순간 붓다의 성품이 깨어난다. 이 불성은 나와 동등하게 상대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상대를 부처로 대하면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부처의 마음으로 경청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나 기자

한마음선원 마음 템플스테이 상설화

부산지원·광명선원
올해 1월부터 진행

한마음선원이 템플스테이를 상설화해 마음공부 포교에 박차를 가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과 광명선원(주지 청백)은 올 해부터 템플스테이를 열고 일반인들이 쉽게 마음공부를 이 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 화해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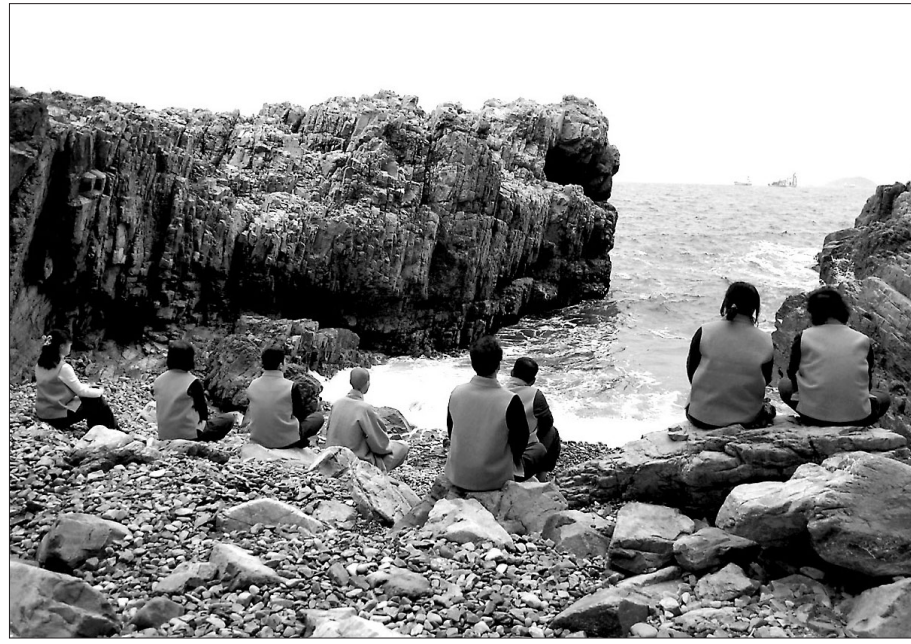
2012년 11월 대법당을 준공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련원을 마련하고 ‘대장부 템(템플스테이)의 줄임말’을 진행해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부산지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는 없다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정도로 주변의 반응이 좋아 올 초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상설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원은 매월 둘째 주 열리는 정기 프로그램과 학교, 기업,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매월 둘째 주마다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에는 평소 대행 스님이 강조한 “다치는 모든 일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다 다하지 않고 긍정하는 대장부(大丈夫)가 되라”는 가르침을 담았다.

대장부 템 사무국은 “‘대장부 템’은 심성 과학을 주창했던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템플스테이 사무국 기획 인력의 전문성이 더해져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심성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덧붙였다.

대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 프로그램인 ‘누구나, 긍정하는 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부산 영도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을 하고 있다.

부산지원·‘대장부 템’ 진행

휴식형·체험형·맞춤형 등 다양

광명선원·관법수행·마음공부 바깥

‘군인·가족 등 계층 포교 앞장설 것’

장부’는 휴식형과 체험형, 당일 체험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학교나 기업체, 단체의 경우 미리 예약하면 맞춤형 템플스테이도 가능하다. 각 단체나 학교의 성격에 맞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휴식형의 경우, 영도 절영 해안누리길 산책,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장부 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템플스테이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대상자를 세분화한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어린이, 청소년, 대학

생, 부부, 아버지, 예비엄마(태교) 등으로 나누고 참가자의 성향과 연령, 참가 목적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원은 △1·7월 ‘어린이(보호자 동반), 멧쟁이 대장부’ △2·8월 ‘청소년, 최고야! 대장부’ △3·9월 ‘대학생, 깨어나 웃어라’ △4·10월 ‘아버지, 아버지 날다’ △5·11월 ‘태교, 대장부를 품다’ △6·12월 ‘가족, 한마음의 품으로’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지원은 프로그램 특화를 위해 템플스테이 수련, 기업체 힐링 교육 프로그램을 다년간 운영해온 전문가 김성수씨를 영입했다. 한국상담학회 회원인 김성수 사무국장 은 조계사, 삼성, 현대, LG, 우정사업본부 등 다양한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체 등 700여 곳 이상에서 인간관계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템플스테이 사무국이나 홈페이지(www.대장부템.org)로 접

속하면 가능하다.

2013년 6월 대법당을 완공한 광명선원(주지 청백)은 경내에 30~4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원도 함께 설립하고, 올해 1월부터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선원 교무담당 청송 스님은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초심자들이나 선원에 오래 다녔지만 마음공부에 부족함을 느끼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관법수행과 마음공부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명선원 템플스테이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템플스테이는 △인제식 △오리엔테이션(사찰예절과 율회법) △저녁예불 △발우공양 △수제가 있는 담선(스님과의 차담) △꽃불제 △법문산책(마음나누기)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월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고주연씨는 “템플스테이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마음이 쉬어졌다”는 것이다. 담선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큰 에너지가 돼서, 마음이 쉬어지면서도 채워졌다는 느낌이 든다. 분별심도 많고 항상 생각에 꼬달리는데, 여가에서 여유를 갖게 돼 뜻 깊은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송 스님은 “인근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 또한 중원대학교의 외국인 강사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어 템플스테이 진행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부모와 자녀, 청소년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를 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원: (070)4650-5535/ 광명선원: (043)877-5000

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지도자 고급과정’

4월 17일~6월 12일, 수료후 강사파견 예정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4월 17일~6월 12일 ‘웰다잉지도자 고급 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구미례 건국대 외래교수의 ‘한국인의 생사관’ △최수빈 서강대 교수의 ‘철학적 관점에서의 죽음’ △장영수 경희대 외래교수의 ‘스트레스 감소 명상과 실습’ △임정애 건국대 마취통증과 교수의 ‘말기 암환자와 호스피스’ △박종익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의 ‘자살예방 교육’ △신선영 서울아르신상담센터 교장의 ‘발달심리학과 노인심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기독교

와 천주교의 죽음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김태정 목사와 마카엘 카톨릭대 교수가 초청돼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임종의례실습 및 장례시설견학(서울시 벽제 장묘사업소)등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도 마련됐다.

수료생에게는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수료생을 대상으로 평가 후, 성남시 여성발전기금으로 진행되는 어르신 웰다잉교육에 강사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wdi.or.kr)를 통해 알 수 있다.(02)722-2101 이어나 기자

종로 궁플라트치과, 무료 치과진료소 운영

4월 27일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앞 사거리에 위치한 궁플라트치과(원장 최우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축제 불교문화마당’ 행사 중 조계사 앞길 치과 앞에 부스를 마련하고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소’를 운영한다.

궁플라트는 평소 경제적 사정으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불자,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어린이와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도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전파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살

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궁플라트 치과 최우환 대표원장이 시작한 자비 나눔 재능기부 의료 봉사활동이다.

이번 행사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불자는 신도증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수급카드 확인증을 지참하고 궁플라트치과 무료치과진료소 부스로 4월 27일에 방문하면 된다.

진료절차는 궁플라트 치과 앞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구강검진을 한 후 치료가 필요하면 옆 건물 3층 궁플라트치과로 이동해 진료를 받으면 된다. (02)722-2870 이어나 기자

(사)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 정 명 진 석범운 대종사



종 정 명진 석범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 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대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 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계방의 창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로의장 보운
원로총무 수덕 원로위원 해산
원로위원 월각 원로위원 혜담
원로위원 흥원

총무원
총무부장 (대행) 재무부장 월산
교무부장 선각 문화부장 한담
규정부장 해오 법규위원장 설산
환경위원장 혜득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이재철

총무원장(대행)

행정원장 도경 사정원장 법륜 문화원장 진송
교육원장 청담 포교원장 동화
비구니원장 법화 정명 비구니부원장 설봉

종무원

경북1총무원장 월정 경북2총무원장 성덕
경북4총무원장 해산 대구2총무원장 해산
대구1총무원장 광덕 경기1총무원장 원담
충청1총무원장 계현 전라1총무원장 법도

- 임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침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점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법계고시 공고

- ◆ 일 시 : 불기 2558년 5월 25일(일)(음 4월 27일) 오전 11시
- ◆ 장 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호 ☎054)974-260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중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육, 용호계 (신종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제,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불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송, 요점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제의식 등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